

AIDS사망자 사고사망자수 증가

(워싱턴 AP=聯合) 25~44세의 미국인 중 AIDS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93년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능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美방역본부의 해럴드 제이프 박사는 美세균학회 주최의 AIDS 회의에서 최근의 통계를 밝히면서 지난 81년이래 44만 1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AIDS에 걸려 2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오늘날 AIDS는 미국의 79개 도시에서 젊은 성인들의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젊은 AIDS 환자는 대다수가 흑인과 스페인계라고 말했다.

국내 가임여성 AIDS 지식 점수 78점

(서울=聯合)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AIDS 지식이 기대치 이하로 나타나 에이즈에 관한 계몽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간호대 張順福 교수팀이 17~50세 가임여성 1천1백52명을 대상으로 AIDS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는 "남녀간의 성기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으며, "에이즈 예방주사가 있다"거나 "항문 성관계를 가져도 AIDS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각각 47%와 45

%를 기록했다.

張교수는 "조사대상자들의 지식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80점이 채 안되는 78점으로도 나타나 AIDS의 계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인도-태국 동 아시아 지역 에이즈 급증. 무방비의 섹스-약물의 혈관주사가 주요인

(뉴델리 UPI=聯合) 아시아 지역의 AIDS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최근 수년간 HIV감염률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AIDS 감염 양상 변화 女性 급속 증가

(제네바 AP, UPI=聯合) 최근 들어 AIDS의 감염 양상이 바뀌어 여성, 특히 사춘기 소녀들의 감염 속도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WHO는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 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10년 전만 해도 HIV에 감염된 여성은 드물었으나 현재는 새로 감염되는 환자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는 특히 HIV에 새로 감염된 사람 중 60%가 15~24세의 연령

WHO가 밝혔다.

WHO의 수석 AIDS 연구원인 레프 호다케비치 박사는 인도 마드라스에서 열린 '인도-영국 HIV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현재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HIV 감염자 수는 2백5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93년보다 1백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전세계 HIV 감염자 중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16%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에이즈 발생이 무려 10배나 늘어났으며, 인도는 HIV 감염자수가 92

에 집중돼 있으며, 남녀비율은 1대 2로 여성쪽이 더 높다고 지적하고 중년여성 역시 감염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인 나프시아 보이 박사는 "1분마다 2명의 여성이 HIV에 감염되고 있으며 2분마다 여성 1명이 에이즈로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 박사는 이처럼 여성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은 성적·경제적으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성에 관해 논의하거나 안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년 이래 3배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들 양국에서는 AIDS가 주로 '무방비의 섹스'와 약물의 혈관 주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泰國 에이즈예방백신 인체실험 시작

(방콕 로이터=聯合) 태국보건부는 한 AIDS 예방백신의 효력을 실험하기 위해 헤로인 중독자 30명이 자진해서 이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르트히트 우라이라트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자원자들이 1년 동안 네차례에 걸쳐 미센프란시

美흑인여성 AIDS 발병 백인의 16배

(애틀랜타 로이터=聯合) 미국민 중 특히 흑인여성들과 라틴계 여성들의 AIDS 발병 위험이 백인여성들에 비해 7~16배나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보건관리들이 경고했다. 작년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진단된 여성들은 1만4천81명이며, 이 중 4분의 3이상이 흑인 및 라틴계 여성들이라면서 흑인여성들의 에이즈 발병률은 백인여성들의 16배, 라틴계 여성들의 경우는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WHO '에이즈로부터 여성을 보호' 캠페인

스코의 제네텍社가 제조한 GP-120 백신주사를 맞게 된다면서 "이번 실험은 이 백신이 인체에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면역성을 만들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唾液 속 단백질 HIV 침입 막는다

(워싱턴 AP=聯合) AIDS는 이상하게도 입맞춤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최소한 한가지가 미국과학자의 연구로 밝혀졌다.

미국립치과연구소의 테시 맥닐리 박사는 사람의 타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AIDS를 일으키는 HIV의

(제네바 dpa=聯合) WHO는 여성을 AIDS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캠페인을 촉구했다. WHO는 44국에서 약 50명의 정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 회의와 관련,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7~8백만명의 여성이 AIDS에 감염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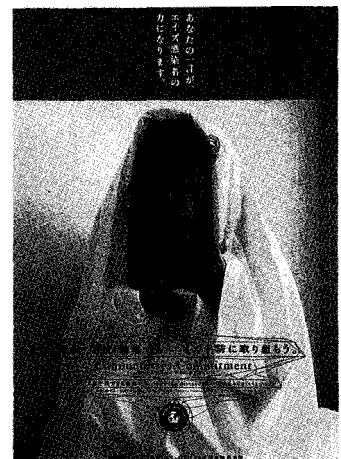
WHO는 여성들을 AIDS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하며, 그들에게 AIDS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교육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혈구감염을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맥닐리 박사는 지난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미생물학회 주최 AIDS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SLPI'라 불리는 타액 속의 단백질이 백혈구에 달라붙어 HIV의 침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HIV 보균자 중 5%는 장기간 발병 않아

(보스턴 AFP=聯合) 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환자 중 약 5%가 감염된 후 여러해



일본의 AIDS 예방 포스터

동안 면역체계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가 말했다.

미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ID)의 판탈레오씨는 "HIV 보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환자의 약 5%가 장기간 AIDS로 발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HIV 보균자 중 일부가 어떻게 AIDS 바이러스를 견제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우리의 데이터는 이러한 형상이 림프樣組織의 보존유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AIDS 공포로 섹스행태 바뀌

(애틀랜타 AP=聯合) AIDS 공포가 일반화되면서 최근 실시된 한 조사 결과 미국인 중 3분의 1 가까이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거나 잠자리를 같이하는 파트너 수를 줄이는 등 기존의 섹스행태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미하기는 하나 3% 가량이 AIDS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예 성관계를 포기했다고 응답했으며, AIDS 감염확률이 극도로 낮은 사람조차도 섹스행위에 있어 이전보다 더 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HIV 결핵 동시감염자(同時感染者) 아시아서 급증

WHO 결핵부는 아시아에서의 HIV 및 결핵의 동시감염자 수는 매우 많아졌으며, 특히 태국·인도·네팔 등에서 AIDS환자의 52~70%가 결핵을 발증하고 있다는 몇몇 조사보고가 있다고 발표했다.

HIV와 결핵의 동시감염자는 결핵만인 감염자에 비해 30배나 결핵을 발병하기 쉽고 결핵도 HIV감염자의 면역기구를 더욱 저하시켜 또 다른 호기성 감염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시아에서의 AIDS환자는 이미 10만명에 이르고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2천년까지는 HIV감염자 수가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200만명 가까운 사람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HIV양성자의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HIV·결핵 동시감염자의 결핵 사망이 급증하고 있어 2천년까지는 아프리카를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핵 미치료의 동시감염자 평균 생존기간은 6개월이며, 치료에 의해 평균 2년 6개월이 연장돼 효과적인 치료만 한다면 적어도 2년은 더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HIV에 대한 감염예방, AIDS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유효하고 값싼 치료법이 확립돼 있는 결핵대책에 세계각국이 강력하고도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